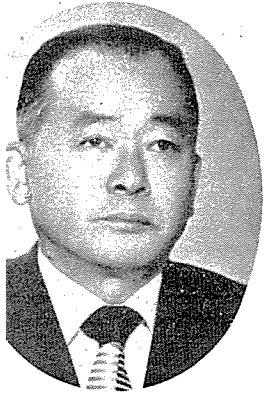


科學의 理解와 生活化로

科學化 模範事例發表會契機



閔寬植 회장

親愛하는 國民여러분 !

오늘 全國民科學化 運動의 一環으로 갖게되는 第1回科學化模範事例發表會에 깊은 關心을 가지시고 이와같이 盛況을 이루어 주신 데 對하여 本人은 우리나라 10萬科學技術人을 代表하여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여주신 崔鍾浣 科學技術處長官과 來賓 여러분께 敬意를 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救國의 領導者이신 朴正熙大統領의 逝去로 國家危難의 非常事態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國民이 總和團結하여 沉着하게 이엄청난 試鍊을 슬기롭게 克服하면서 우리의 憲政秩序를 承繼할 第10代 大統領을 選出하여 中斷없는 祖國의 近代化課業을 遂行하고 있습니다.

이는 悠久한 半萬年의 歷史를 가진 文化民族의 矜持와 高邁한 氣概를 萬天下에 誇示한 壯舉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國民의 念願이며 그동안 舉國적으로 推進해 온바 있는 80年代의 高度産業 福祉國家 建設이라는 宿題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時代的使命으로서 叡知를 모아 精勵하여 期必코 完遂해야 할 國家의 命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이를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爲하여 輸出增大와 重化學工業의 育成은 勿論 科學技術의 暢達에 力點을 두고 있으며 全國民科學化運動을 展開함으로써 合理的이고 能率의이며 創造的인 國民生活를 營爲할수 있도록 不斷한 努力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科學技術人의 總本山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서는 이미 全國的인 組織을 通한 “새마을技術奉仕活動” 과 “서울市民

全國民 科学化 風土振作

科學技術的인 思考涵養되길

科學의 밤”을 비롯한 各種行事를 展開하여 生活의 科學化와 當農의 科學化를 이룩하므로써 科學的인 思考의 涵養은 勿論 農漁村의 所得增大와 地域社會 發展에 이바지하여 왔읍니다.

그 나라 科學技術의 水準이 바로 國力의 尺度가 되는 것과 같이 오늘날 國家間에 있어서의 科學技術 水準의 差는 先進國과 後進國이라는 國際社會의 兩面性을 보여주고 있으며 文化人과 未開人의 階層社會를 形成하고 있습니다.

親愛하는 國民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가지 難關을 克服하고 先進國圈으로 跳躍하려는 大望의 80年代를 目前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高度의 精選된 科學技術의 要求度는 急激하게 높아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全國民의 科學的인 思考의 涵養과 生活의 科學化가 切實하게 要請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科學化 模範 事例 發表會는 그동안 學校에서 職場에서 또는 家庭에서 平素 生活의 科學化를 實踐하여 얻은 成果를 比較 評價하고 檢討함으로써 優秀事例를 發掘하여 이를 獎勵 啓導하기 爲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科學化模範事例發表會를 契機로 하여 모든 國民이 科學을 理解하고 生活化하는데 앞장서는 氣風이 振作되고 아울러 科學技術을 活用하는 風土가 造成됨으로써 이땅에 全國民科學化運動이 定着되기를 當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行事에 協調하여 주신 科學技術處를 비롯한 關係當局 그리고 後援機關과 言論關係者 여러분께 衷心으로 感謝를 드리면서 이 事業이 해를 거듭할수록 알찬 結實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79. 12. 12.

韓國科學技術 團體總聯合會

會長 閔 寬 植